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내일**  
 2018. 10  
 Vol. 522





# CONTENTS

2018. 10 Vol. 522



08



12

## SECTION 1 미래로 가는 길

- 04 내일을 위한 청년정책
- 08 가재 미래로
- 12 청년 서포터

## SECTION 2 목표를 얻는 길

- 16 능력개발 길잡이
- 20 미래 유망 직종
- 24 명인을 만나다



20

## SECTION 3 변화가 시작되는 길

- 28 Work & Life Balance
- 32 청춘불패
- 36 상생을 꿈꾸다



28



40



44

## SECTION 4 꿈을 함께 하는 길

- 40 함께 하는 세상
- 44 나누고 더하면 행복
- 48 드림 프로젝트

## SECTION 5 희망을 노래하는 길

- 52 노사문화 우수 기업
- 56 쉽게 풀어 보는 산업안전
- 58 노동법 길잡이
- 60 모엘 뉴스
- 66 알기 쉬운 정책
- 68 내일 카툰



52

## SECTION 6 여유를 찾는 길

- 70 이달의 청백리
- 72 건강 100세
- 74 한국의 맛
- 76 상식사전
- 78 길 위의 사색
- 82 모엘 마당



78

고용노동부 소식지 10월호 <내일>  
 통권 제522호  
 등록번호 강남 라00389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발행인 이재갑  
 발행처 고용노동부  
 편집위원장 이한수(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기획·편집·디자인 하나로애드컴

청년들에게 내일의 해답을 제시하다

#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 매달리며 좌절하기도 하는데, 청년들에게 다양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글 노혜진

## 2017년 신설된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일 경험 프로그램의 시너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기존 강소기업탐방과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신설했습니다. 일 경험 기회가 적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 탐색과 직접적인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는 미취업 청년 1만 명이 전국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탐방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선입견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탐방 대상 기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벤처기업협회 선정 우수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혁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 업계에서 그 실적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가비 전액 무료,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만 15~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탐방 기간은 1~5일까지 다양한데요, 전액 무료입니다.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 일 경험 프로그램(<http://www.work.go.kr/experi>) 홈페이지 상단의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참여 기업의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지역과 기업에 따라 일정이 다르니 관심 있는 기업들을 여러 곳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대학 재학생을 40% 이상 비율로 선발한다고 해요. 프로그램은 일정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제 현장 모습과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 기업 홍보 효과도 특특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기업문화와 좋은 복지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요,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탄탄하고 복지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하여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일 경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참여를 망설이는 청년들에게는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업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회사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 고질적인 실업률과 인력난 해결책

지난 9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성과 소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라면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탐방을 한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인력센터를 통해 알게 된 직업상담사**

심석인 상담사는 대학 졸업 후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육아로 인해 7년 정도 경력단절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왕성하게 일을 했던 경험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자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방과후 교사 등의 일을 하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여성인력센터의 문을 두드렸죠. 거기서 집단 상담에 참여했는데 상담의 진행자가 직업상담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리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심석인 상담사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고양시 일자리센터를 거쳐 커리어넷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구직자를 정성으로 돌보다

# 커리어넷 심석인 상담사



구직자를 위해 자신의 개인 시간까지 투자하는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구직자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같이 길을 찾아보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고 있죠.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사례 공유 수상자 심석인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 취업성공패키지를 계기로 만난 사람들

커리어넷에 입사하여 만 3년 동안 심석인 상담사는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를 전담하여 담당했습니다. 만 18세에서 69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취성패는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좋은 커리큘럼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취업까지 연계를 해 주죠. 하지만 사람마다 성취도가 다르고 유형이 다르다 보니 상담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이 맞을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죠.”

심석인 상담사는 취성패를 담당하게 되면서 가끔은 노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반면에 자신과 함께 미래를 공유하고 고민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이 일을 맡게 된 것 역시 인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한 30대 청년의 이야기

심석인 상담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구직자의 이야기를 물어보니 한 30대 청년의 사례를 들려 주었습니다.

“남들처럼 입시를 통과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간 대학이 자신의 적성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에 다녀오니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취업 준비생이 된 거죠. 면접에서 떨어지고 사설 컨설팅도 받아 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심석인 상담사는 일단 구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답답함이 있는지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마음을 열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해 달라고 하여 제가 일대일 첨삭을 해 주었죠. 그 뒤로 다시 고쳐서 가지고 오고 첨삭해서 다시 보내주곤 했어요.”

업무가 바빴던 심석인 상담사는 퇴근 후에 남아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정성이 통했을까요, 몇 달 후 구직자는 원하는 공기업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했다며 저에게 떡을 사 가지고 와서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컨설팅 회사보다도 도움이 됐다고, 합격하는 순간 상담사님부터 생각났다고 하면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플랜을 세워 주셨다고 고마워하는데, 내가 이런 보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도움이 되었다는 말 한마디가 주는 기쁨

심석인 상담사는 도움이 되었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보람이 행복하기에 업무 외의 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검토해 주기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성패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참여자의 의지와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요.”

심석인 상담사는 청년층은 자신의 아이 같고, 노년층은 이모와 삼촌 같고 중년층은 자신과 비슷한 것 같아서 모든 상황에 입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에 대한 실망이 제일 무서워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희망은 반드시 보입니다.”

직업에 대한 공유뿐만이 아니라 구직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심석인 상담사. 일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구직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진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국내 최초 온라인 언론 홍보 회사

# (주)오픈프레스

우리는 수많은 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오픈프레스는 보도자료를 발굴하고 작성하여 기사화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언론 홍보 전문회사입니다.

**2018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주)오픈프레스의 이야기를 만나 보시죠.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 독심에서 독심있게 일하는 방법!

01. 지게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킨다.
02. 애근이 많은 것은 일을 잘 하는게 아니다.
03. 팩트를 보고하고 내 의견을 덧붙여 말한다.
04. 많은 여러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먹는다.
05. 메신저는 업무에 활용하고 대화는 말로 한다.
06. 연락처와 퇴근시간에 눈치를 주지 않는다.
07. 서로의 입장과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08.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덮으려 하지 않는다.
09. 대표와 얘기하고 싶으면 과장없이 요청한다.
10. 대안없이 회사가 싫어지면 내가 떠난다.

### 중소기업과 언론을 연결해 주는 중간 매개체

(주)오픈프레스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홍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한 회사입니다. 가장 먼저 시행했고 주력 분야 중 하나인 뉴스캐스트는 홍보실이 없는 중소기업을 언론과 연결해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6,300여 개의 기업과 거래하고 있으며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인 프레스랩은 뉴스캐스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을 언론에 이어주는 것입니다. 경쟁사의 콘텐츠가 (주)오픈프레스의 프레스랩을 통해 언론으로 전달되기에 (주)오픈프레스의 콘텐츠는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페이퍼와 카피폴리스 사업 분야도 시행하여 총 4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높은 보도자료 퀄리티로 업계 선두 유지

(주)오픈프레스가 언론과 기업들에게 신뢰를 받는 이유는 바로 보도자료의 퀄리티가 높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기사를 내보낼 때도 광고처럼 보이면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보도자료 콘텐츠가 좋으면 그러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오픈프레스는 보도자료 작성 시 철저하게 팩트를 체크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사실과 다른 점이 없도록 확인한 후 언론에 넘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끼리 케이스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성장 때문일까요, (주)오픈프레스는 회사 설립 이래 13년 연속 흑자와 기업 신용평가 A0 등급을 기록하여 업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하이서울) 인증을 받았고 9년 연속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정직한 기업으로도 인정 받았습니니다.





### 위라벨을 기본으로 실천하는 기업 문화

(주)오피프레스의 사무실에는 '똑섬에서 똑섬 있게 일하는 방법'이라는 문구로 대표의 경영철학 10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위라벨을 찾아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대표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소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편하게 해 주고 위라벨을 실천해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도 해요.

현재 (주)오피프레스는 4년제 대졸자 기준 초임 2,600만 원을 제공하며, 사원 기준 복지 포인트 월 5만 원, 중식 제공, 간식 무한 제공, 직장 건강검진 외 추가검진을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50%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도서는 회사에서 구매해 주고, 전국 30여 곳의 법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경조사비, 명절 선물, 생일 축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입사 후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퇴직연금 가입, 법인 차량 제공, 출산육아 탄력 근무제도 실시합니다.



###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용

(주)오피프레스가 선호하는 인재상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 능력과 인화력, 긍정적인 사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인재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 시 인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분란 없이 전 직원이 사이좋게 지내는 분위기라고 해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On The Job Training'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탕비실 커피 머신 사용법부터 회사의 역사, 구조, 사업 소개까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하여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정기 워크숍, 봄소풍, 칭찬 릴레이 등도 운영하여 직원들의 친밀도를 높입니다. 특히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칭찬,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청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주)오피프레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오피프레스는 앞으로도 즐거운 회사,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할 (주)오피프레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평생 기술로 평생 직업 만들어요

# 기술·기능인력 양성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함으로써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기술·기능인력 양성' 과정. 스스로 취업을 선택한 이들이 현장기술 중심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더불어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특별한 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글 노혜진

## 기술·기능인력 양성이란 무엇인가요?

국가 기간·전략 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에 필요한 현장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으로,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계 구축에 있어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년제학위과정(다기능 기술자) 및 전문기술과정(기능사과정)을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하고, 산업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요.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도 늘리기 위해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이들에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기술·기능인력 양성에는 2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중 '2년제학위과정'은 제품 개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한, 말 그대로 다기능기술자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 혹은 동등 학력 소지자라면 고교 학생부 성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성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문기술과정'은 문이 더 넓어서 만 15세 이상의 취업준비생이라면 학력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두 과정 모두 기능·기술 훈련을 받는 것이라 이론교육과 실습과정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2년제학위과정의 경우는 2년 과정으로, 조금 길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전문대나 일반대 학과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이 과정을 마치면 산업학사 학위도 받게 돼요. 게다가 학기당 약 130만 원의 국공립 수준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고, 졸업 후에는 취업 연계 및 사후 지도도 받을 수 있어 탄탄한 훈련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취업이 급한 지원자의 경우는 전문기술과정에 참여하면 됩니다. 1년짜리도 있고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과정도 있거든요. 교육비 전액 지원과 함께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료 후에 취업 연계와 사후 지도도 이어져요.

###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훈련 과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2년제학위과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국공립 수준 등록금(학기당 약 130만 원), 다양한 장학금 혜택, 졸업 후 취업 연계 및 사후지도
전문기술과정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학력 제한 없음)	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무료, 수료 후 취업 연계 및 사후 지도, 훈련수당 및 교통비(최대 월 25만 원)

### 어떤 과정을 고를 수 있나요?

때론 본인이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아직 선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전국 36개 캠퍼스에 300여 개가 넘는 학과가 있으니, 홈페이지(www.kopo.ac.kr)를 통해 하나하나 보면서 적성에 맞고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과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좋은 건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인 만큼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장 경험이 많은 우수 교수진도 확보돼 있고, 기술 중심이라 디자인·출판·콘텐츠·조리·시스템·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학과도 충분히 갖추었지요. 또 전국 어느 캠퍼스나 지원이 가능하고, 집이 멀더라도 기숙사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 기술 역량 갖추고 취업을 준비해요!

실제 최연소 기능장 자격 취득과 포스코 공채 합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규환(2018년 부산캠퍼스 졸업) 졸업생과 2018년도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생산제조학회장상 수상, 50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한화기계 품질보증팀에 취업한 한지완(2018년 창원캠퍼스 졸업) 졸업생처럼 공신력 있는 각종 대회의 입상도 거머쥐면서 대학의 추천으로 대기업에 입사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취업을 선택해 필요성을 절감하고 하는 과정이어서 더욱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취업에 딱 맞는 교육으로 군더더기 없는 시간을 보낸 만큼 미래를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평범한 취업이 아닌 평생 직업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도 가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추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범죄의 증거를 찾아 내는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

#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노명선 교수

최근 휴대폰, 스마트 기기 등의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범죄의 표적이거나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흔적은 디지털 기기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만 잘 확보하면 범죄의 단서나  
증거 등 많은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데,  
이에 적법하게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제도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된 특수부 검사

(사)한국포렌식학회의 회장이자 성균관대학교의 과학수사학과 노명선 교수는 검사였습니다. 18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며 특수부와 기획부서에만 있었다고 해요. 특수부에서 고위공무원 뇌물사건, 경제문제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뇌물사건이나 경제 문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은 필수입니다.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당사자의 하루 생활 패턴이나 회계 장부, 결재 서류 등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상태의 자료를 봐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노명선 교수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중 2000년 휴대폰 연구개발 자료 유출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당시 휴대폰 개발로 한창 열을 올리던 두 회사 중 한 회사의 연구소장이 경쟁사로 스카우트되어 가게 됩니다. 연구소장을 빼앗긴 전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상대 회사에서 연구소장이 이직 후 빼돌려 이 기술이 구현됐음을 증거로 들며 고소를 했는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노명선 교수는 경쟁 회사의 연구동 전체를 압수 수색하게 됩니다. 경쟁 회사에서는 관련 증거를 기술적으로 삭제하였지만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는 이를 거의 복구해 냈습니다. 그리고 기술 3개를 특정하여 공소 제기한 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많이 알려졌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절차, 증거 수집 기술 등을 종합하여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을 알리기 위한 노력

노명선 교수는 검사를 그만두면서 변호사 개업보다는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디지털 포렌식을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가게 되었고, 바로 그 이듬해인 2006년 (사)한국포렌식학회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시험을 만들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노명선 교수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원본과 사본이 구분이 안 되며, 원본을 복제해서 변조를 해도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디지털 자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수 수색을 하면 그 물건의 점유권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는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를 하는 것이죠.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요. 디지털 증거는 원본을 떠나면 원본과 동일한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수사학과

노명선 교수는 학회를 설립한 후 2017년 성균관대학교에 과학수사학과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성균관대학교의 과학수사학과는 크게 디지털 포렌식, 법과학, 법안전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범죄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2012년부터는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를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모르는 일반인도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진화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고 수집한 뒤 제3자가 검증까지 거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남아 있을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디지털 자료는 자료가 대용량입니다. 휴대폰 하나만 압수해도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 사진과 자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범죄 관련 정보만을 찾아 내야 하죠.”

노명선 교수는 이 때문에 법률과 컴퓨터의 기술적인 테크닉을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상지는 미국이지만 한국이 가장 선진국으로 동남아시아에도 시스템 구축과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기술을 계속 탐구하고 법에 대해서도 알면서, 윤리적인 의식을 갖춘 청년들이요. 진화하는 범죄수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를 수사하는 사람들은 한발 앞서 생각해야 하거든요.”

노명선 교수는 영화 <서치>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의 수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찾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활동할 영역이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조사업(탐정업)법률이 시행되면, 이러한 컴퓨터포렌식 전문가 자격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자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의 미래를 생각하는 명인

# 태성엔지니어링 김태용 대표



자신의 기술을 꾸준히 갈고닦은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7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태성엔지니어링의 김태용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이지수

태성엔지니어링은 1997년 설립된 플라스틱 사출 전문 기업입니다. 사출이란 금형에 맞추어서 원하는 모형을 찍어 내는 것으로 태성엔지니어링은 이 중 휴대폰용 초소형 진동 모터, 초소형 카메라 모듈, 진동 모터, 자동차의 온도조절센서 FAN, 재봉틀의 보빈 케이스, 난방공조 시스템, 드론의 프로펠러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Q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플라스틱 사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A**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한 회사에서 사출기계 정비를 맡았어요. 당시 사출기계는 독일에서 수입한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기계가 한번 고장나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었죠. 수리가 될 때까지 몇 달 동안 기계가 멈춰야 했으니 생산 일정도 못 맞췄고, 독일의 기술자가 오면 항공, 숙박료까지 부담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던 저는 도전해 보자는 생각으로 기계 수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Q 태성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나요?**

**A**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10년을 다니고 이직한 회사가 몇 년 되지 않아서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당시 회사의 중고기계 3대를 월급 대신 가지고 나왔죠. 2~3달 동안 기계를 수리하여 그걸로 첫 사업을 시작했어요. 1997년 45평 공장을 임대해 태성엔지니어링을 창업했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Q 창업 후에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신다면요?**

**A** 회사를 창업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삐삐가 유행이었습니다. 당시 삐삐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진동모터는 국산이 12파이(동그란 원 크기 단위), 일본 최신 모델이 8파이였죠. 부품가격이 12파이가 300원, 8파이가 400원 정도였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4파이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 샘플을 가지고 당시 유명하다는 통신 기기 제조회사는 다 찾아갔죠. 당시 진주에 있던 모토로라 전문업체가 저희 시제품을 보고 연락하여 100개를 수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신 모델 모토로라가 초소형 모터를 장착했다는 콘셉트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 이후 다른 제조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죠. 그 제품을 기반으로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 대표님이 생각하는 플라스틱 사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내가 만든 플라스틱 사출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부품이 작지만 기계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소재로 쓰인다는 자부심이 큼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부이지만 제 부품은 단순한 플라스틱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Q 대표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회사가 커지니까 예전처럼 운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기술자에서 경영자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박사 3년 차예요. 저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휴대폰, 자동차, 일반 가전,



바이오 분야의 플라스틱 사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장을 더 키워서 각 4개의 계열사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뛰어난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Q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

**A** 첫 번째가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입니다. 직원들이 공장에 다닌다는 창피함을 없애기 위해 회사 건물을 일반 사무실처럼 지었는데요, 명동 한복판에 유리로 만든 공장을 지어 사출을 해 보는 게 한때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은데요, 플라스틱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을 만들 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피해가 없는 플라스틱, 환경에 도움이 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김태웅 대표는 “자신이 나가고자 하는 길이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그의 말에서 한 분야에서 묵묵히 정진하고 있는 장인의 품모가 엿보입니다. 태성엔지니어링과 김태웅 대표의 미래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직원이 발전하는 회사를 만든다

# 동우화인켐(주)

국내 최초 반도체용 고순도 약품을 국산화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반도체 산업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발전하는 미래를 열어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기업 10개 기업 중 한 곳인 동우화인켐(주)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 1991년 설립된 소재 전문 회사

동우화인켐(주)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자회사로, 1991년 설립 이래 전자 재료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반도체/TFT-LCD 제조 시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고순도 Chemical, Etchant, Photo Resist, 칼라필터 및 편광필름의 자체 개발을 추진하여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를 이루었습니다. 신사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LED용 부재료와 최근에는 터치센서패널, 고순도 알루미늄 사업 등에도 적극 진출해 정보전자소재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소재전문회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우화인켐(주)은 2017년 매출 2조 1,608억 원을 달성하면서 스미토모화학의 글로벌 네트워크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일·생활 균형을 챙기는 문화

동우화인켄(주)의 인사팀 강태욱 과장은 동우화인켄(주) 기업 문화의 특징을 '일·생활 균형을 챙기는 문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야근이 많지 않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저녁 5시 30분에 퇴근하는데,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주 12시간 이상 야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1년이 되면 리프레시 휴가 8일, 연차휴가 15일, 정기휴가 3일을 합해 총 26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이 휴가는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우화인켄(주)은 연차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1년에 최소 12일은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기에 휴가 사용률은 매우 높다고 해요. 또한 1년에 55만 원의 휴가비와 7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여가 생활을 위하여 낚시, 배드민턴, 캘리그라피, 통기타, 밴드, 등산, 야구, 축구, 봉사 등 약 30여 개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와 기숙사에 피트니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우화인켄(주)은 1.18 회식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1종류의 술로 1차만 회식을 하고 8시 전에 끝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임신기 단축 근무, 어린이 캠프 등 임신과 양육으로 인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1.5%의 금리로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고, 타 지역 직원들을 위해 1인 1실 기숙사도 운영합니다. 평택시내, 강남, 사당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하여 출퇴근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의 인생 동반자

현재 동우화인켄(주)의 직원수는 2,860명입니다. 직원수는 많지만 직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공장, 신흥공장,

삼기공장 각 사업장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반장간담회, 직책간담회, 도시락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프로야구 관람, 한국민속촌 방문 등 조직활성화 행사 등도 진행하며, 소소하게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농구장에서 인형 뽑기, 사격, 양궁 같은 미니 이벤트 등도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동우화인켄(주)은 10년 이상 다닌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매년 40~5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우화인켄(주)의 중기 목표는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계속 발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동우화인켄(주)의 목표인 TOP Partner in 3E를 달성하여 2세기를 선도하는 전자,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

동우화인켄(주) 물류팀 김별진 주임



저는 2004년 동우화인켄(주)에 입사한 물류팀 김별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접숙했던 워크넷에서 동우화인켄(주)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사내 커플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했는데, 제가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부담 없이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장점 같습니다. 또한, 동료들이 서로 배려를 하는 가족 같은 문화라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는 현재 사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음식이 맛있고, 선생님들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점도 좋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동우화인켄(주)에 다니고 싶어요. 14년 동안 일을 해 오면서 한 번도 출근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었던거든요, 제 자리가 있고, 제 생활을 존중해 주는 동우화인켄(주)에 다닌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나를 발견하여 앞으로 나아가다

# 창업컨설턴트 박래진

오랜 직장생활을 끝내고 난 사람들은 방향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왔음에도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까닭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박래진 씨도 그랬습니다.

자료 제공 노사발전재단



## 퇴직 후 삶의 방향 설정에 고민

박래진 씨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박래진 씨 역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많은 경력이 있었음에도 퇴직 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 생애경력설계서비스와 만나서 파악한 자신의 능력

우연한 기회에 박래진 씨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는데, 전직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교육과 상담, MBTI성격유형검사를 받으며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만들어 온 능력과 아직 만들지 못한 능력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무 역량 강화와 실행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중 맞춤형상담은 박래진 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일해 온 환경과 처해진 위치, 성격 등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로 박래진 씨는 자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앞으로 향상시켜야 할 능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파악하니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업무능력, 신체능력, 관계능력, 인지능력 등 자신의 경력을 자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 달라진 생활 패턴과 발전해 나가는 모습

프로그램 참여 이후 박래진 씨는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아침이 길어지면서 산책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걷는 운동을 취미로 만들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은 필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었지만, 나중에는 저녁 약속 후에 집까지 7km를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더 체력이 붙었다고 합니다. 체력이 조금씩 붙은 박래진 씨는 걷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탁구를 배우면서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함이 줄어들자 자신에게 맞는 경력을 자산화하기 위해 강의를 들으며 미래를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컨설팅으로 가닥을 잡은 그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하기 위해 세법, 원가 회계 등을 공부하고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래진 씨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서 '나의 경력 자산을 내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컨설턴트로서 꿈꾸는 밝은 미래

현재 박래진 씨는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컨설팅(멘토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불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기량에 가속이 붙을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박래진 씨는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전의 자신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금 될 수 있는 이유를 '나를 마주하니 남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현재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엑셀러레이터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더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어요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장애인들의 고용률이 점점 늘고 있고, 더불어 중증장애인들도 취업의 문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스스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서로 협력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글 강숙희

### 장애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모니터의 글자를 확대해 주는 확대독서기가 있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의자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휠체어용 책상이 있다면, 청각장애인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들의 업무는 얼마나 수월해질까요? 이러한 생각에서 정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보조공학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점자정보 단말기, 음성출력기, 특수작업기구, 특수키보드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에 대해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매년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5,000여 명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1,500여 명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했지요.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란?

근로지원인 제도는 쉽게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근로지원인은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업무 중 서류낭독이나 물품이동 등의 업무를 돕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업무능력 보완이나 심리지원 등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지원인에게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시간당 7,580원이 지급되고요, 수화통역이나 점역 교정의 업무를 하는 근로지원인에게는 9,000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은 300원의 부담금만 내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 컴퓨터 활동 등 부수적 지원 -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이동 지원 -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정리 지원
시각	-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 서류 대독, 점역, 수기 등 지원 - 인터넷, 신문, 서적 등 정보 검색 -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 관련 지원
청각 및 언어	- 타인과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고객관리 지원 -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 관련 지원 -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발달장애 등	-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업무능력 보완, 원활한 대인관계 등 지원 - 신장장애 등 질환에 따른 이동, 운반 등 과도한 육체활동 등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과 절차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장애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1588-1519) 지사로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서비스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지원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근로지원인이 되고 싶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면 되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전국에 30개 기관이 있답니다.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
- 근로지원인의 경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 체결한 수행기관으로 지원

작은 배려가 만드는 더불어 사는 세상!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한 청각장애인은 “업무를 뜻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자존감이 낮아지기 일쑤였는데, 근로지원인과 함께하고 나서는 걱정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작은 도움이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중증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한다면, 비장애인과 일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채용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일이기도 하고요, 복지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국내 유일 장애인 대상 전문 여행 기업  
**(주)에이블투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중에는 '살아 생전 바다 한 번 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을 즐기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기업이 바로 **사회적기업 (주)에이블투어**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주)에이블투어

**사회복지사가 생각한 장애인의 권리**  
(주)에이블투어의 박창용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회취약계층과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1988년에 현 장애인 콜택시와 비슷한 부류의 전화라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봉사가 가능한 시간을 등록하고, 장애인이 요청을 하면 매칭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조금 늘어나게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박창용 대표의 이러한 생각은 2006년 그가 일하던 사회복지 시설에서 시행했던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달에

몇 번 외출을 하는지, 외출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나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장애인을 업고 안으로 이동하고 휠체어는 접어서 짐칸에 넣어 놓습니다. 이마저도 휠체어 놓을 공간이 없어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인권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설문조사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여행을 가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박창용 대표는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개조한 버스**  
박창용 대표가 대한체육회의 장애인 선수용 버스를 보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당시 1대의 버스를 구매하여 리프트를 장착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박창용 대표는 2009년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설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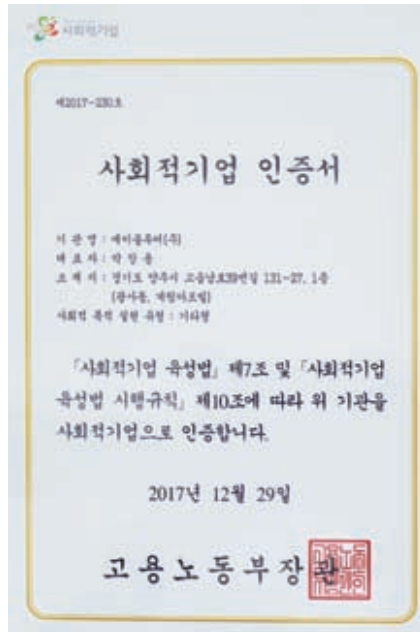
### 걸림돌이 많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 운영

“사회복지시설 일을 하면서 전기, 시설, 용접 등의 관리도 제가도 맡아 했어요. 장애인용 리프트는 설치를 하는 회사도 수리를 하는 회사도 국내에 얼마 없습니다. 수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직접 가서 부품을 사고, 기술도 배워 왔죠.”

박창용 대표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 운영은 큰 걸림돌이 많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1년에 6개월밖에 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겨울이 되면 휠체어로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수요가 완전히 끊긴다고 해요. 박창용 대표는 관광업계의 기형적인 수익구조도 어려운 점이라고 했는데, 보통 관광기사는 팁과 커미션으로 월급보다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지만, 장애인 버스 운전기사는 이런 부가수익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 많아요. 제 손님들은 복지기관이나 장애인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리프트 작동 등으로 기사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박창용 대표는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에 사회복지사 호봉수를 봉급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모든 지역에 장애인 전문 여행사가 운영되는 날까지

현재 이런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국내에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창용 대표는 새로운 모델을 운용하기 위해 대기업 CSR 활동에도 초점을 맞췄는데, 여러 사람들의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장애인과 저소득 가정의 무료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 공기업에 직접 제안을 하여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창용 대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리프트 설치 비용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일부만이라도 지원을 받아 수도권보다 더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도 차량을 1대씩 보내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편입니다. 하지만 ㈜에이블투어 같은 회사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한다면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이 닿는 데까지 일을 계속 하겠다는 박창용 대표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 행복을 찾아 주는 즐거운 일터 행복마루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조금 서툰고 조금 느려도 이곳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줍니다.  
대표와 매니저들은 직원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챙깁니다.  
진짜 정을 느낄 수 있는 회사, **2018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한  
LG CNS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행복마루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 LG그룹에서 8번째로 설립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행복마루는 LG CNS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2016년 설립되었습니다. 사회 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LG그룹의 특성상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창립되었는데, LG그룹에서는 8번째입니다. 행복마루 이순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적합 직무를 선정하는 등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LG CNS 경영진과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수시로 모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법과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게 되었죠.”

행복마루 설립 전 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맺은 LG CNS는 LG그룹의 다른 사례를 참고하여 직무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때 선정된 것이 사내 카페, 청소, 헬스키퍼, 세차 등이었다고 합니다.

“카페와 청소 헬스키퍼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3가지로 선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 가족 같은 분위기의 행복한 일터

행복마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표정이 밝습니다. 일하는 것을 행복해하고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순환 대표는 이 같은 비결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꼽습니다.

“우리 회사는 딱딱한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는 여행을 해 본 적이 없거나 아주 적게 해 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연을 들은 매니저가 직접 휴일을 이용해 여행 계획을 짜고, 직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가이드를 자처해서 여행을 다녀온 일도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최근에는 직원들끼리 같이 하는 여행이면 회사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의 특징이 또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일이 서투르고 느리더라도 채근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기다려 주면 따라올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직원들끼리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될 때까지

이순환 대표는 자신의 생일에 직원들이 직접 쓴 편지를 받았다며 자랑하기도 했는데, 예능에 소질 있는 직원들이 많아 적성을 살려주고 싶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행복마루의 로고는 직원이 직접 그린 거예요. 이렇게 남다른 소질을 보이는 직원들은 사내공간을 빌려서 작게 전시회를 열어 주기도 합니다.”

이순환 대표의 목표는 ‘행복마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직원들의 자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멋진 장애인 직장인의 표본이 될 수 있는 행복마루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순환 대표의 말에 행복마루 직원들의 밝은 표정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직원의 성장을 독려하는 문화

처음 17명으로 시작한 행복마루는 2년이 지난 지금 79명까지 직원이 늘어났는데, 퇴사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직원의 성장을 독려하는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매니저는 6명입니다. 이 중 4명이 장애인인데,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그에 맞는 직급과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마루는 1년 동안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 본인의 적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을 좀 했어요. 매니저들에게 기다려 주자, 하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이 일을 잘해 주고 있어서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피 한 방울로 몸속의 질병을 진단하는 기기를 만드다

# 바디텍메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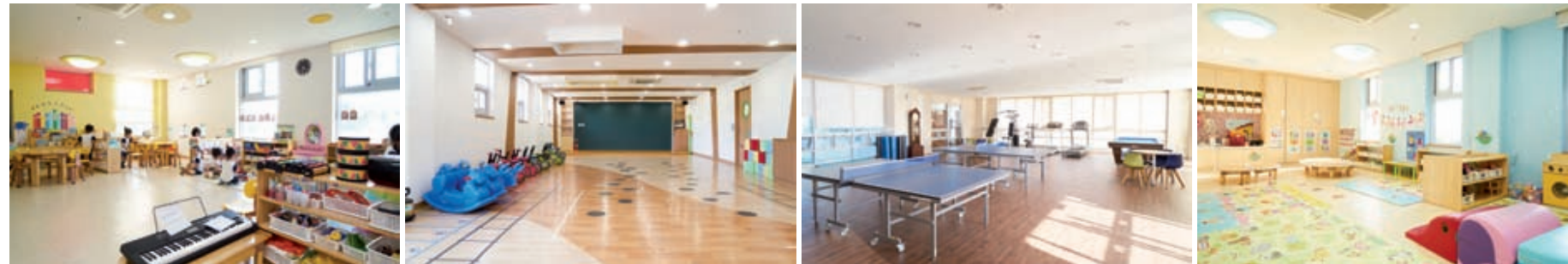
지금까지 건강검진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부담이었는데, 이러한 검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형 체외진단 기기를 만든 회사가 바로 **2018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바디텍메드(주)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 체외진단 의약품 및 기기 제조 판매 회사 바디텍메드(주)

바디텍메드(주)의 시작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림대학교의 바이오메디컬학과의 교수였던 최의열 대표가 창업교육센터에서 벤처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항체개발 전문 회사로 창립하였다가 2001년 진단기기 전문회사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2009년 기기 제조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시약 연구개발 및 체외진단 기기를 제조 판매까지 하는 종합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며 2015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소형 기계 개발의 선두주자

바디텍메드(주)의 주후돈 중앙연구소장에게 바디텍메드(주) 제품의 특징을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현장진단 시스템'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큰 중앙검사실에서 큰 기계를 이용해 혈액 검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우리 회사가 개발한 기계는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소형 현장진단기인데요,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한두 방울의 혈액만으로도 호르몬, 염증, 감염증 등 35가지 질병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디텍메드(주)의 진단기기는 의료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와 응급현장에서 더욱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염증검사 분야에서 바디텍메드(주)의 진단기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환경이 매우 뛰어나습니다. 어디에서든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죠. 하지만 중국만 하더라도 근접 거리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 때문에 빠르게 검사 결과가 나와서 병원에 체류하거나 재방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저희 제품을 선호하게 된 거죠. 중국 외에도 중동, 아프리카 등 10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주후돈 중앙연구소장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8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바디텍메드(주)가 진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단의 혜택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꿈이라고 합니다.



### 직원의 건강을 생각하는 복지

바디텍메드(주)의 경영기획본부 최선호 차장에 의하면 처음 바디텍메드(주)의 시작은 3명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331명이 바디텍메드(주)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선호 차장은 바디텍메드(주)의 성장의 이유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문화'를 꼽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꼽을 수 있습니다. 0세반부터 만 5세 영유아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만 6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도 운영해요. 방과후 교실의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에는 회사 지원으로 한 달 동안 캠프도 운영합니다. 현재 1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점점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증축도 계획하고 있어요."

또한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데요, 호텔 조리장 출신의 요리사가 선보이는 수준급 식사를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배려합니다. 특히 건강 관련 업종이다 보니 직원들 건강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회사 내에 테니스, 배드민턴, 헬스기구, 스크린 골프, 탁구대 등을 갖추어 놓았으며 골프와 탁구의 경우 강사도 초빙하여 레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라고만 하면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월례대회도 열어요. 우승하면 상품도 지급합니다. 이 때문인지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요."

###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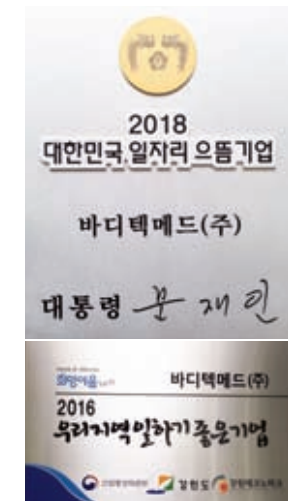
바디텍메드(주)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시채용으로 진행을 하는데, 대표님이 직원 한 명 한 명을 챙기기 때문에 생산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채용 시에는 성실함, 창의성, 도전하는 자세 등을 많이 봐요."

바디텍메드(주)는 일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이 영업팀으로 가기도 하고, 생산팀으로 가기도 하죠. 파티션 없는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일에 의욕적이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환영한다고 해요.

"우리 회사는 바이오, 물리, 기초화학, 전자, 전기 계열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가 전 세계에 진출하는데 동참하겠다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환영합니다."

바디텍메드(주)는 전 세계 각 가정에 바디텍메드(주)의 진단기기를 보급해 누구나 간단하게 검진을 받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달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디텍메드(주)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

# KT에스테이트

2010년 창립한 KT에스테이트는 순풍에 돛 단 것처럼 순조롭게 향해 중입니다. KT에스테이트의 이러한 성장은 노사가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대화와 소통의 문화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7 노사문화 우수 기업** 인증을 받은 KT에스테이트의 이야기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 kt estate

### ICT 기반 차별화된 공간가치 창출 기업 KT에스테이트

KT는 통신 회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KT에서 분사한 KT에스테이트는 특이하게도 부동산 종합회사입니다. 부동산 종합진단, 개발과 투자, 운영관리 및 이동화·증권화 등 부동산 사업의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오피스부터 임대주택,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KT에스테이트 박현구 팀장은 '최초의 부동산 종합회사'라고 소개하며 'KT의 ICT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공간가치 창출을 미션으로 부동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KT에스테이트는 원래 KT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였습니다. 하지만 보유자산에 대해 좀 더 전문적, 효율적 운영 및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전국의 KT지사를 찾아다니며 분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독립하게 되었죠. 당시 63%의 직원이 KT에스테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초기에는 KT그룹의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분사한 직원들끼리 많은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발맞추어 온 덕분에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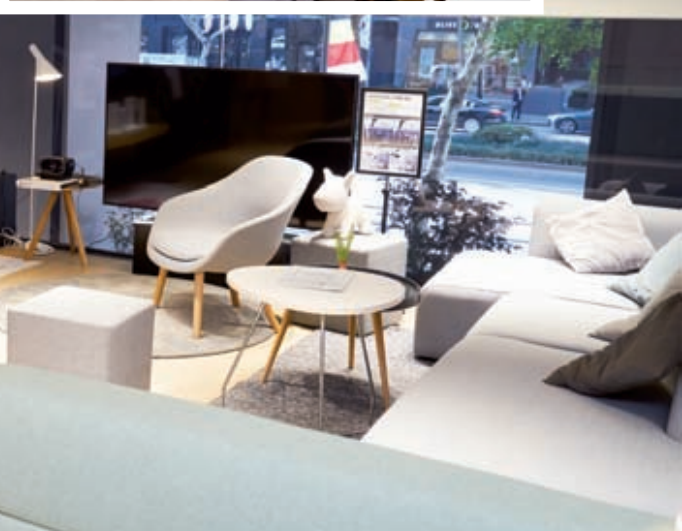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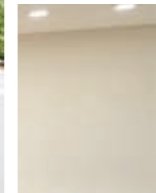
### 화합하는 노사, 배려하는 노사

KT에스테이트의 류재영 노조위원장은 KT에스테이트의 노사 문화 특징을 '배려'로 꼽았습니다.

"2014년은 KT에스테이트에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조직을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76명의 명예퇴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를 신입사원으로 채우는 대신, 노조에서는 명예퇴직자가 희망 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회사에 제안했는데요,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큰 대립 없이 해결이 되었죠."

기업은 노조의 의견을 깊게 생각하고, 노조 역시 기업의 입장을 배려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KT에스테이트 노사문화입니다. 특히 노조사무실에 빵, 우유, 주스, 핫도그,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준비해 놓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노동조합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에 직원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1년에 2번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들읍니다. 조합 간부 수련회에서 의견을 받기도 하죠. 대표와는 약속을 잡지 않고도 차 한잔 하면서 스스럼없이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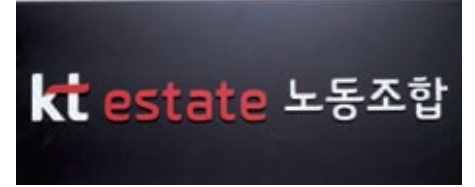


###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KT에스테이트는 지방 직원들이 본사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에서 회사에 의견을 내어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 또는 부부를 본사에 초청하는 행사를 열게 됩니다. 직원 가족 초청 행사를 통해 지방의 직원들은 본사에서 대표와 임원을 만나고, 서울의 KT에스테이트의 사업장을 둘러본 후, 호텔에서 숙박하고 롯데타워를 구경하는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작년부터는 직원 부모님을 초청해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보내주기도 하고, 직원 자녀들을 한 달 동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어학연수를 보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만들고자 오후 6시 15분이 되면 사무실의 불을 끄는 등 야근 없는 문화를 만들고 타지역 직원들을 위한 월세 지원, 리프레시 휴가,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1년 유급(월급의 80% 지원) 휴가 등 다양한 복지를 펼칩니다.



### 지역 인재 포용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업

KT에스테이트는 2015년부터 지역 신입사원 채용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노조에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류재영 노조위원장은 뜻밖의 성과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 주목해 보자는 취지였어요. 첫 해 8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는데, 업무 습득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KT에스테이트는 전국에 사업장이 있으니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인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올해로 4년째 꾸준히 지역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재영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를 더욱 고민하고 회사와 의논하여 직원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KT에스테이트 곽현구 팀장도 직원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임을 강조하며, 노사 상생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기업경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회사도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더욱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직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에스테이트를 직원들의 평생 직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류재영 노조위원장과 곽현구 팀장의 말 속에 약속하고 책임지는 노조, 화합하는 노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장년노동자,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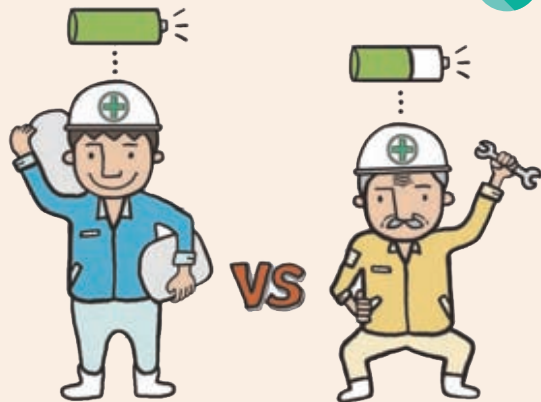
도움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1 장년노동자란?

장년노동자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장년노동자의 특징



- **시각** 동공으로 받아들이는 빛이 20대가 3배라면 60대는 1.6배에 불과
- **청각** 청각 기능은 20세부터 감퇴하는데 50대가 되면 더 빨리 감퇴됨
- **근력** 60세 이후 20~30대에 비해 20~30% 감소
- **지구력** 30대에 비해 14% 감소
- **순발력** 60세 전후로 30세보다는 32%, 20세보다 40% 감소
- **정신력** 위험부담, 회피심리, 집중력 저하로 사고 위험 높음

▶▶▶ 장년노동자는 평형기능이 저하되며 몸의 균형을 취하지 못해 떨어짐, 넘어짐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심각한 재해로 연결되기 쉽기에  
→ 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현장 조성 **질병예방, 건강지도, 안전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 3 장년노동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재해 사례

### 〈아파트경비원〉

- 슬리퍼를 신고 아파트 야간 순찰 중 지하 계단을 내려오면서 실족하여 넘어짐
-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전지작업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



### 〈건물청소원〉

- 청소 시 빗자루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오른쪽 어깨의 인대가 손상 및 회전근개 파열
- 화장실에서 바닥 청소작업을 하던 중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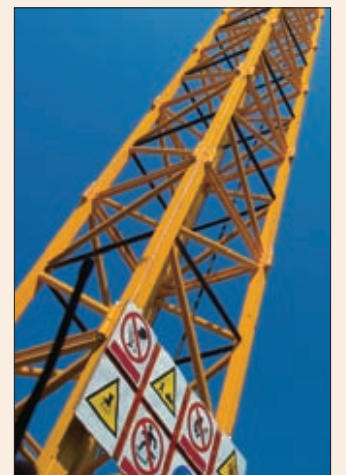


## 4 장년노동자를 위한 사업장 내 실천 사항

- 표지판, 작업절차용 게시물 등은 글자를 크게, 분별 잘 되는 색상으로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설치(비치)
- 고소작업, 심야작업, 중량물 운반작업 배치를 가능한 배제



- 고혈압, 당뇨 등 기초질환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 교대작업으로 인한 수면장애 예방 철저



추가적인 자료 다운로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올해부터 법적으로 난임휴가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A** 2018년 5월 29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만혼 등의 영향으로 난임부부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등의 실효성 높은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난임치료휴가의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3 조항이 신설되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상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간 3일의 범위에서 '1일 단위'의 분할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난임치료'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및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로 정하고 있으며 '체질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문과 관련하여 '연간'의 의미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한 1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 (2)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 2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 Q 금년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금년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는 길이 열렸습니다.

### (1)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범위 확대

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 또는 신규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29일 법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그 범위가 확대되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 (2)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보장

과거 법 규정이 부재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판례에 의해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를 신설하여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여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게 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육아휴직 개시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의 경우 ① 2018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출근한 것으로 보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함) 비례적으로 약 4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이 발생할 것입니다. ②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출근률이 80% 이상이면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은 42년간 제관기술을 바탕으로 장비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조현근(62세) 동환산업(주) 부사장이 수상했다. 철탑산업훈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백영수 부장(56세), 석탑산업훈장에는 (주)현대미포조선의 손덕화(59세) 4급 기사에게 수여되었으며 산업포장은 양철기 유림프로헤어 대표를 포함하여 총 5명에게 수여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명장(7명), 우수 숙련기술자(10명), 숙련기술전수자(1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2개 업체) 등 우수 숙련인에 대한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직업능력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제12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9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최대 '지식·정보 공유의 장'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 이 행사는 'Change for Tomorrow'라는 슬로건으로 HRD·HRM 분야의 세계적인 명사들이 강연자로 나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 제22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8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이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2018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우수 숙련기술인, 노동자, 사업주, 직업훈련기관대표, 직업훈련교원, HRD 업무 종사자 등 6개 분야 유공자 95명이 훈·포장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대회로, 그동안 어반비즈 서울, 모어댄, 십시일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많은 사회적기업이 배출되었다.

본선대회 41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2억여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일반창업분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을, 청소년 분야 대상을 비롯해 11팀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연대회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문에서 교육부장관 특별상을, 일반창업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별상을 신설 수여한다.

입상자 중 창업 의지가 있는 지원자 모두에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사전 선발 혜택이 주어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금융,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경연장!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9일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여 전국 922팀이 신청한 이번 대회는 최종적으로 권역별 예선 심사, 권역대회 대면심사, 본선 진출 대상 맞춤형 멘토링 캠프를 거쳐 최종 41개 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 인증 사회적기업 총 2,000개 돌파

9월 4일 67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은 2,030개가 된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래 11년 만에 2,000개 소를 넘어선 것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총 근로자는 44,250명이며,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은 26,970명(60.9%)이다.

금번 2018년 4차 사회적기업 인증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보호하고 감귤 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설립된 제주클린산업, 하동지역 화가들과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된 예술가 조합인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청년 중심 가죽 패션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코이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집수리 기업 유한회사 아름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2018.09.04 / 사회적기업과 최영은 사무관(044-202-7422)

## 고용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는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9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하였으나, 특히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 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 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2018.09.07 / 여성고용정책과 서현승 사무관(044-202-7471)

##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 명에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 명에게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 명에서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 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고시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9.11 /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사무관(044-202-7712)

## 2018 노동자가 평가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발표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이 공동으로 일·생활 균형('이하 워라밸')이 우수한 중소기업 10개 기업을 선정·발표하였다. 선정된 워라밸 우수 기업은 잡플래닛 홈페이지에 '2018 일·생활 균형 실천 기업 테마관'을 만들어 기업별 상세 정보가 소개된다.

워라밸 우수기업이란 조직문화, 복지후생, 경영 리더십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동시에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을 의미한다. 선정 과정은 잡플래닛 기업 리뷰가 20개 이상 공개된 중소·중견기업(대기업, 글로벌기업, 공기업 제외) 중 그 회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평가 점수 등을 기준으로 2배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 중 고용 유지율, 노사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개 기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선정 발표는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이 지난해에 이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워라밸을 실천하는 중소기업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워라밸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였다.

2018.09.13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오동훈 사무관(044-202-7506)



#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2019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2019년 고용노동부 정책 포인트 6

### 01 청년 일자리 지원



-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6개월 x 50만 원, 10만 명)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청년 12만 명)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규 9만 8,000명)
- 청년내일채움공제확대(신규 12만 명)
- 청년센터 건립(20개소)

### 02 저출산 극복 일자리 여건 개선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11만 명)
-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강화
- 직장 어린이집 확충(10개소)
- 유연 근무제 확대 도입(3,000명 → 7,600명)

### 03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2,500명)
-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1만 명)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5,000명)
-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캠퍼스 및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 확대(300명 → 500명)
- 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04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및 고용안전망 확충



-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 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50 → 60%, 30일 추가)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월 210만 원 미만)

### 05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미래 유망 분야 고급 인력 양성 훈련과정 확대
- 기술혁신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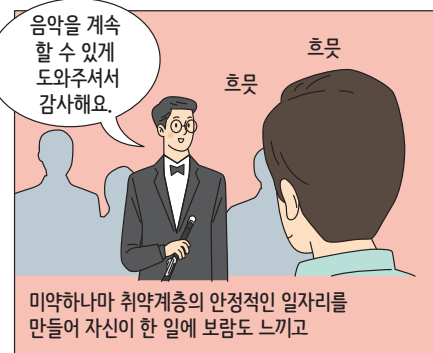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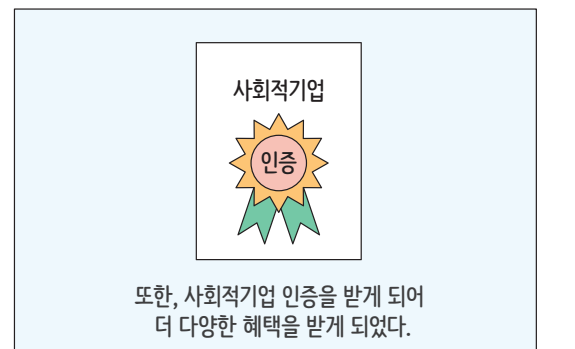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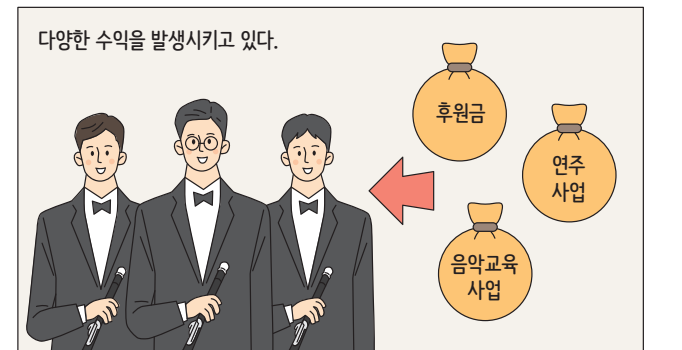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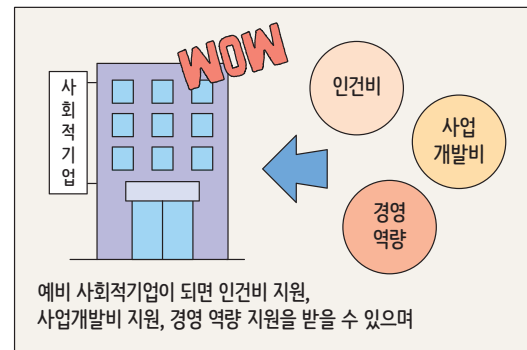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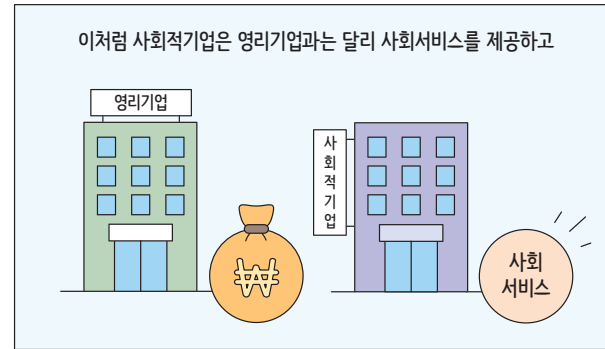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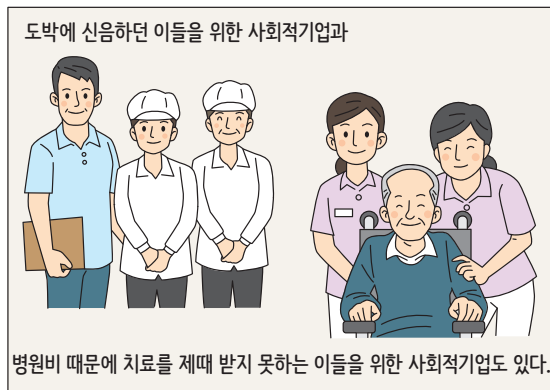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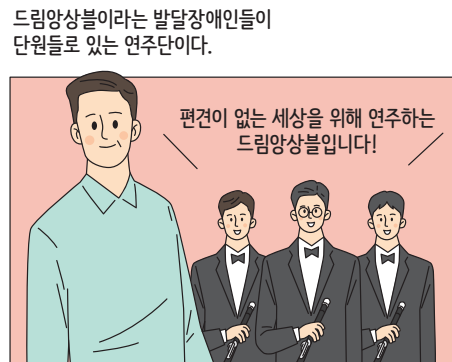
### 06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 노동자 임금보장 강화
- 비정규직 차별 개선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강화



#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적기업





# 어지러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청백리 김신국

선조 5년(1572)에 태어나 선조 24년(1591)에 생원이 된 김신국은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남에서 의병 1,000명을 모집하여 왜군에게 큰 타격을 준 공을 인정 받아 참봉이 되었다. 그는 병자호란 때도 계속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다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 가기도 하였는데 그 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호조판서를 맡아 재정출납을 올바르게 하는 일에 힘썼다.

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기지를 발휘하여 횡령을 막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삼고구궤(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절하는 항복의 예) 치욕을 겪은 후, 조선은 매년 청나라에 조공으로 은자를 바치느라 어려움이 컸다. 백성들의 부담은 날로 커졌지만 일부 관리들은 은자를 중간에서 빼돌리는 등 나라의 기강이 문란했다.

하루는 청나라에 보낼 은을 창고에서 상자로 옮겨 담아 봉하는 일을 김신국이 감독하게 되었다. 호조 관리 하나가 대신을 등에 업고 매번 은을 빼돌렸는데, 김신국이 이를 알고 직접 오게 된 것이다. 그 날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리의 은덩이를 몰래 소매에 숨기고 어딘가에 이를 숨겨 두고 오기를 반복했다. 김신국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소란을 피운다면 관리가 잡아떨 것을 염려해 기지를 발휘했다.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며 은을 숨긴 관리에게 남은 나머지 은을 모두 한 창고에 넣고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일 다시 봉은할 때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지시했는데, 다음날 창고에 와 보니 없어진 은덩이가 채워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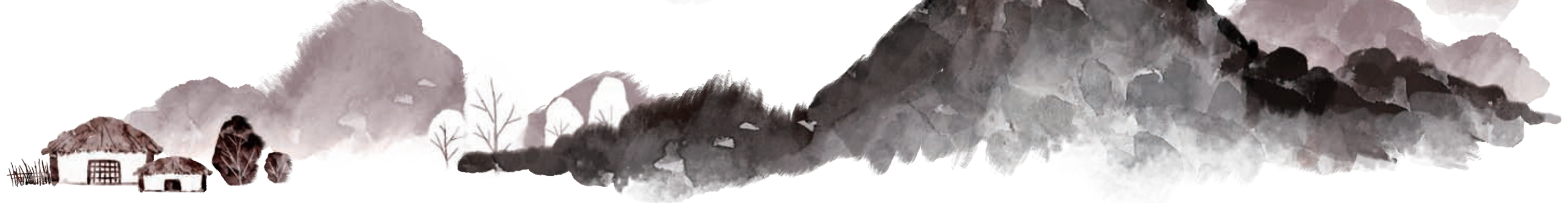
## 관행에 편승하지 않는 청렴결백함

인조 24년(1546) 그가 영중추부사라는 직위에 있을 때였다. 영중추 부사는 정 1품으로 영의정과 같은 위계의 영예로운 자리였다. 그러자 한 신하가 인조에게 아뢰었다.

“영중추부사 김신국은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웠으나, 그 조상들이 변변치 못하여 가문이 미천한 것이 흠이니 그 조상들을 추증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선에서는 공을 세운 신하의 조상들을 추증(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조상에게 벼슬을 주던 일) 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김신국은 나라에 공이 많아 벼슬이 영중추부사에 이르렀으니 그 조상들을 추증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김신국은 이를 거절하며 이야기했다.

“내 선조가 어찌 순치(順治)의 연월(年月)을 알리오.”

순치는 당시 청나라 황제의 연호로 순치의 연월이란 김신국이 살고 있던 시대를 가리킨다. 즉, 자신의 조상이 어찌 자신의 공을 알고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된다. 자기가 세운 공의 대가는 이미 자기가 받았는데, 어찌 조상까지 추증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관행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방식으로 가문에 영광을 더하고 싶지 않다는 김신국의 청렴결백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절기가 되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 인원 추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9~10월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 청소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글 편집실 도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은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 3가지 주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성 질환이다. 이 중 봄이나 가을 등 특정 계절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한다. 원인은 나무나 꽃의 꽃가루로 인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봄에는 포플러, 소나무, 오리나무, 사나무의 수목화분이 주원인이고, 여름에는 잔디, 가을에는 썩, 돼지풀 등의 잡초 화분이 원인이다. 증상이 심할 경우 눈부심, 과도한 눈물, 두통 등의 증상이 같이 생기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축농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세 이하 아동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 10대 청소년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이는 집단생활이 활발한 때이므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항원에 본격적으로 노출되고 사춘기 등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활발해 알레르기 항원에 감수성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예방법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꽃가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원인이 되는 꽃이나 나무를 피한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 되어 후각 장애, 두통 등을 야기하며 천식, 축농증,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이므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병원을 찾아 경과에 따른 약물 치료 등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 배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어 으스스스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배에 꿀을 넣고 꼭 고은 배숙이 생각난다. 기관지에 좋은 배는 시원하고 달콤한 맛으로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식품이다.

정리 편집실 도움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삼한시대부터 먹어왔던 고유 과일

우리나라 배 재배는 삼한시대와 신라 문헌에 이미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배 재배를 장려했다는 기록도 있다. 허균(AD. 1611)의 저서인 <도문대작(屠門大嚼)>에 5품종이 나오고, 19세기 작품으로 보이는 완판본 <춘향전>에서는 청실배(靑實梨)라는 이름이 나오며 구한말에 황실배(黃實梨), 청실배(靑實梨) 등과 같은 명칭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종류를 일반적으로 많이 재배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조사에서는 재래종 배 33품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재배 명산지는 봉산, 함흥, 안변, 금화, 봉화현, 수원, 평양이었고 우수 품질은 황실배, 청실배, 함흥배(咸興梨), 봉화배(逢火梨), 청당로배(靑棠露梨), 봉의면배(鳳儀面梨), 운두면배(雲頭面梨), 합실배 등으로 기재되었다. 청실배는 경기도 구리시 묵동리에서 재배되었는데, 구한말까지 왕실에 진상되었을 정도로 맛이 뛰어났다. 묵동은 배를 기르기 좋은 조건의 사양토로 여기서 재배하는 것을 먹골(묵동의 우리말)배라 불렀다. 여기에서 재배되던 품종이 신고품종으로 바뀌어 지금은 먹골배라는 이름으로 재배·판매되고 있다.

### 기관지 질환과 피로 회복에 도움

배의 과실은 수분이 85~88%를 차지한다. 열량은 약 50Kcal이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당류 외에 칼륨이 140~170mg 들어 있어 체내 대사에 좋다. 사과산·주석산·시트르산 등의 유기산, 비타민 B와 C, 섬유소·지방 등이 들어 있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다. 기관지 질환에 효능이 있는데, 감기와 천식에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목이 쉬거나 가래, 기침이 날 때도 좋다. 또한 배변과 이뇨작용을 돕는다. 배가 차고 아플 때 증상을 완화해 주며 증기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 밖에 해독 작용이 있어 숙취를 없애 준다.



### 감기예방 효과가 좋은 배숙

재료 : 배 큰 것 1개, 통후추 24개, 생강 5톨, 말린 대추 5알, 설탕 10큰술, 물 12컵, 잣

- 만드는 법
- ① 배는 8조각으로 등분하여 배 등에 통후추 3개를 깊숙이 박는다.
  - ② 물 6컵에 생강을 얇게 저며 넣고 끓이다가 처음 끓어 오른 물은 버린다.
  - ③ 다시 물 6컵을 넣고 물이 끓어 오르면 설탕과 배, 대추를 넣고 끓인다.
  - ④ 배가 꼭 익을 때까지 10분 정도 끓여 준 다음 식힌다.
  - ⑤ 충분히 식으면 생강을 빼 내고 잣을 띄워 마신다.



# 상식을 넓히는 소소한 잡학 모음

세상은 넓고 지식은 넘쳐난다.  
그 가운데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있지만,  
알면 좋고 몰라도 무방한 지식도 많다.  
필수는 아니어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모았다.

글 편집실

## 우리나라 최초의 전깃불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곳은 경복궁 안의 건청궁이다. 1883년 미국에 사절단으로 갔던 민영익, 홍영식 등은 전기 발명품을 보고 감탄하여 고종에게 발전소 건립을 건의하였다. 조선 정부는 에디슨 전등회사에 전등 설비를 발주하고 1887년 우리나라에도 전깃불이 처음으로 켜졌다. 향원정 연못가에 세워진 발전 설비는 당시 동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 16족 광열등 750개를 켤 수 있었는데, 석탄이 연료였기에 연못의 수온이 높아져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 호텔의 효시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던 인천에 세워졌다.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며 각국 외교사절과 여행객들이 몰려들어 숙소가 부족해졌다. 이에 일본인 호리 리키 타로가 인천 중구 중앙동에 호텔을 개관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호텔의 효시로 불리는 대불(大佛)호텔이다. 1888년에 완공된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양옥건물로 서양식 침실과 식당을 갖췄다.

## 가마니의 유래

새끼를 낳줄로 하고 그 사이를 짐으로 촘촘하게 엮어 짠 자루인 가마니는 일본에서 건너온 물건이다. 가마니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섬을 썼는데 촘촘하지 않아 낱알이 작은 곡식을 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1900년 초에 일본에서 도입되면서 가마니가 섬을 대신했다. 가마니라는 말은 일본어인 가마쓰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쌀 80kg 단위의 가마의 어원이 되었다.





# 서울의 성곽을 따라 역사를 걷다 서울 성곽길

옛 사람들은 성곽을 따라 돌면서 도성 안팎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즐겼다. 일제강점기 때 전차를 설치하기 위해 훼손되었던 성곽길은 2012년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복원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글 편집실 사진 노혜진



## 총 18.627km의 도성 둘레길

조선시대 4대문인 송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돈의문과 4소문인 창의문, 혜화문, 광희문, 소의문을 포함, 조선의 도읍지 한양을 에워싸고 있는 도성 길을 말한다. 전체 18.627km로 인왕산-북한산-낙산-남산으로 이어지는데, 4개의 코스로 구분된다.

1코스 백악(북악)산 창의문에서 혜화문까지, 2코스 낙산은 혜화문에서 광희문까지, 3코스 남산은 광희문, 송례문까지, 4코스 인왕산은 송례문에서 창의문까지를 말한다. 1코스는 청와대와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지만 창의문~말바위안내소를 입장할 때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개방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2코스는 성곽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며 산책하듯이 걷기 좋은 길이고, 3코스는 대체로 평이하지만 남산 일부 구간이 상당한 높은 편이니 주의하는 게 좋다. 4코스 역시 가벼운 등산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좋다.

## 아름다운 길 낙산 구간

동대문역 1번 출구를 나와 동대문 성곽공원을 따라 오르면 2코스 낙산 구간에 진입한다. 나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모자와 선크림, 양산 등을 챙겨 가면 좋다. 오르막 초입을 오르면 이화벽화마을 초입이 보인다. 예전 모습 그대로의 주택과 군데군데 아름다운 벽화들이 눈길을 끄는 작고 한적한 마을이다. 골목골목마다 예쁜 들꽃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경들이 가득하다. 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감상만 하고 나와야 한다. 이화마을에는 이화동 마을박물관도 있으니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화마을의 좁은 골목 계단을 오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낙산공원 정자가 나온다. 잠깐 숨을 고른 뒤 성곽길을 따라 걸어보자. 혼자 걷고 싶을 때도 좋은 길이다. 길은 잘 정비되어 있고, 옛 사람들의 흔적이 느껴지는 성곽은 아직도 우뚝 서서 그 위용을 자랑한다. 오래된 돌들 사이에 조금 덜 오래된 돌들이 어우러져 있어 오랜 시간에 걸쳐 무너지고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돌의 모양도 크기도 다른 점이 재미있다. 쉬엄쉬엄 나 있는 길을 걷다 보면 혜화문이 우뚝 보인다. 이곳이 낙산 코스의 마지막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워라밸로 달라진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한 컷'을 담아주세요!

여러분의 워라밸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시된 주제를 당신만의 감성으로 전해주세요.

'일러스트' 또는 '사진' 한 컷이면 OK!



#똑똑한회의

#유연한근무

#일생활균형

#휴가

#노동시간단축

#워라밸

#정시퇴근



고용노동부



GRAFOLIO

## 청년의 꿈과 함께 성장하는 작지만 강한 일자리 2019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찾아라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입니다.



신청분야



각 분야별 우수기업 선정 (중복 선정 가능)  
※ 선정 후 유효기간: '19.1.1 ~ '19.12.31

혜택

홍보·채용

- 내이버를 통한 인종기업정보 상시 노출
- 대학생 서포터즈 현장취재 기업탐방기 워크넷 게시
-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용 채용관에 게시
- 청년채용박람회 우선참여

재정지원

- 대출금리 0.5% 우대(신안은행)
-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용 100%, 보증료 0.2%이상 차감)
- 정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시 7점5점

선정우대

- 병역특례업체 (신입가능요원) 선정시 (가점5점)
- 정책자금, R&D, 수출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시 선정우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사업 선정시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기준우대

신청대상

- '18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접수기간

2018.9.5(수) ~ 2018.10.15(월) 18:00

제출서류

- ①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 ② 기업소개서
- ③ 혁신역량분야 증빙서류 (인증서, 포상, 지적재산권, 연구소 인정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접수방법

- ① 이 메 일 : kbiz9998@kbiz.or.kr
- ② 팩 스 : 02-785-2747
- ③ 우편. 방문 :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8층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문의

☎ 1899-7942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신청공고 바로가기



#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월간 <내일>이 함께 합니다.

## 웹진으로 <내일>을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을 웹진으로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 홈페이지(<http://labor21.com/>)에 접속하면 지난 호부터 최신 호까지 다양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월간 <내일>은 독자들이 만들어 갑니다

월간 <내일>은 독자들과 함께 합니다. 알고 싶은 정책, 좋았던 기사, 기타 개선해야 하는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보내 주세요.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 9월호 퀴즈 정답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 9월호 정답자

- 권미경(경기 안산시) 박시후(경기 고양시) 이순임(충북 청주시)
- 권슬기(서울 광진구) 손인규(서울 양천구) 최숙희(서울 동작구)
- 김정선(경기 남양주시) 우소정(서울 마포구)
- 박동애(충북 충주시) 정영숙(충남 태안군)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1만 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10월호 퀴즈

일 경험 기회가 적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 ※월간 <내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하여 보내 주시거나 **월간 내일 웹진(<http://www.labor21.com/>)에서 신청**해 주세요. 익월부터 반영되어 소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www.labor21.com](http://www.labor21.com)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나 보세요

일을 통한 행복을 알려 주는 고용노동부의 소식지 월간 <내일>  
월간 <내일>에는 도움이 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직원과 상생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업,  
알고 싶은 상식 등 꼭 필요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 가을 이런 좋아

# 내일

my Work, my Tomorrow 2018. 10. vol.522

보내는사람

성명 \_\_\_\_\_ (남 여)

주소 \_\_\_\_\_ 휴대폰( - - )

□	□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01.25 - 2019.01.24

서울강남우체국  
제41787호

my Work, my Tomorrow 2018. 10.

# 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3길 8 (신사동, 산도빌딩 5층)

하나로애드컴 월간 <내일> 편집실 앞

0	6	0	2	6
---	---	---	---	---



< Campaign Report >

1. 귀하의 성별은?

- 남자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 10대  
 20 · 30대  
 40 · 50대  
 60대 이상

3.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군은?

- 유통 · 서비스업  
 제조업  
 의료 · 제약  
 교육업  
 건설업  
 IT통신  
 미디어디자인  
 금융업

4. 귀하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션은?

- 청년 정책  
 여성 · 중장년 이야기  
 기타 고용노동정책  
 문화예술 정보

5. 귀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6. 보셨다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업종 다양화  
 실패 사례  
 관련 제도  
 트렌드사업 정보

월간 내일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  
에 표시해 주세요

● 10월호 독자퀴즈의 정답을 적어 주세요.

●● 이번 호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다음 호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이나 월간 <내일>에 바라는 점을 적어 주세요.

이곳에 풀을 칠해 주세요